

2016. 4. 15(금)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16년 4월 1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2133-4674
담당자	김문수	2133-4675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운영

Seoul, expanding operation of Global property agency for expats

- 현재 175개 업소에서 2016년에 45개 업소를 추가 지정 220개 업소 운영
-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소(법인포함)로 1년 이상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 2016.4.15.(금)~5.31(화)까지 중개사무소 소재 해당 자치구에 신청
- 해당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를 통해 7월 중 지정증 교부

- 서울시는 2016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175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2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5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5,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175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31), 일어(29), 영어·일어(8), 중국어(5), 기타 언어(2)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6), 강남구(18), 서초구(14), 송파구(10), 마포구(9), 기타 구(68)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협회·지회 등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Speaking, Writing)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인천공항, 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한다.
-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무소는 지정철회 한다.

-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02-2133-4675(토지관리과), 각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